

대학생의 취업선호도와 창업의도에 관한 사회적 영향관계 분석

김유신¹, 성창수², 박주연^{3*}

¹동국대학교 기술창업학과 박사과정, ²동국대학교 기술창업학과 전임교수,

³동국대학교 기술창업학과, 자문위원

An Analysis of Social Influence on University Students' Job Preferences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Yu Shin Kim¹, Chang-Soo Sung², Joo Y. Park^{3*}

¹Ph. D. candidate, Dept. of Technology Entrepreneurship, Graduate school, Dongguk University

²Assistant Professor, Dept. of Technology Entrepreneurship, Graduate school, Dongguk University

³Adviser, Dept. of Technology Entrepreneurship, Graduate school, Dongguk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과대학생을 대상으로 취업을 선호하는 원인과 추후 창업의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적 영향요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부모, 지인, 개인의 창업경험과 취업 및 창업동아리 경험 등 사회적 영향관계가 취업을 선호하는 학생들의 진로선택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창업교육을 이수한 공과대학생 중 향후 진로를 취업으로 선택한 학생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연구결과, 공학계열 학생들의 취업 선호 이유로 안정적인 수입, 기업만의 시스템 경험, 부모님의 취업선호, 자금부족과 창업에 대한 지식부족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업을 선호한 학생들의 사회적 영향관계 중 지인의 창업경험에 따라 창업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공과대학생들의 창업의도 및 이해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론과 창업교육의 학습방향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실증적인 분석을 통한 창업교육 관련 향후 연구문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어 : 사회적 영향요인, 창업의도, 취업 선호도, 공과대학생, 질적 연구방법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asons for preferring employment and the social influencing factors to improve future entrepreneurial intentions. Especially,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nfluence of social influences such as parents', acquaintances, and individuals' experience of start-ups and employment and entrepreneurship club experiences on career choice of students who prefer employment. For this purpose, qualitative research method was applied to students who selected entrepreneurship career course among college students who completed entrepreneurship educ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stable income, system experience, preference for parents' employment, lack of funds and lack of knowledge on start-ups.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 intention of start-up is increased according to the experience of start-up of the acquaintance among the social influences of students who prefer employment. The result of this study suggests the methodology and learning direction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which can improve entrepreneurship intention and understanding of university students. In addition, this study proposes future research related to entrepreneurship education through empirical analysis.

Key Words : Social influence, Entrepreneurial intention, Job preference, Engineering college student, Qualitative analysis

* Corresponding Author : Joo Y. Park (park3500@naver.com)

Received July 30, 2018

Accepted October 20, 2018

Revised September 27, 2018

Published October 28, 2018

1. 서론

국내 고용시장의 분절화 현상은 심화되고 있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고용의 질과 복리 등의 차이도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대학생들은 진로선택에 있어 불확실한 창업 보다는 안정적인 취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1]. 또한 친구, 친지, 가족 등 주변 지인의 관계 및 영향도 대학생들의 진로선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대학생들의 취업 선호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인식과 주변 지인들의 영향은 대학생의 취업 선호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2]. 최근 대학생들의 직업선택은 대기업 및 공공기관과 중소기업 중에서 현재 자신의 능력에 견주어 자신들에게 이익이 많은 선택지를 비교하면서 사회적인 인식과 경제적인 이익이 높은 곳을 선택하는 경향이 크다[3]. 이러한 경향은 대학생들의 진로선택에 있어 성공에 대한 불확실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 등 창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주변 지인들의 부정적인 선호도 등으로 인해 창업보다는 취업을 선택하는 경향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특히 공과대학생들의 취업 선호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공학계열 졸업자들은 취업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 하지만, 공과대학생들의 기술, 소프트웨어, 바이오 지식 등 공과 대학생들의 기술기반 지식과 잠재성을 사업화하고 기술 혁신형 창업으로 활성화 시키는 노력이 필요하고, 이는 곧 낮은 취업률과 경제성장 등 당면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이에 공과대학생들의 진로선택에 있어 취업을 선호하는 이유를 알아보고, 창업을 회피하는 원인을 파악하여 기술기반을 장려할 수 있는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공과대학생들의 진로결정에 있어 창업과 취업 중 창업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공과대학생들의 진로결정에 있어 영향을 주는 사회적 관계 요인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진로선택에 있어 취업을 선택한 공과대학생을 대상으로 취업을 선호하는 원인과 추후 창업의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적 영향요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부모, 지인, 개인의 창업경험과 취업 및 창업동아리 경험 등 사회적 영향관계가 취업을 선호하는 학생들의 진로선택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2. 진로선택의 사회적 영향요인

부모, 지인, 친구 및 동료 등 사회적 영향에 따라 대학생들의 진로선택 및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많다. 특히 대학생의 창업의도는 사회적 관계의 구성원들이 기대하고 있는 의견·태도·행동 등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대학생의 부모님, 지인, 친척, 친구들 중에서 창업 성공에 대한 스토리를 간접적으로 경험할수록 창업의도가 높아지고[5], 개인의 성장 과정에서 가장 강력한 역할 모델인 부모 이외에 친구, 멘토, 교사, 현직 또는 이전 회사의 동료, 주변의 창업가 등 다양한 사회적 관계에 의해 창업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높아진다[6]. 이와 같이 창업자 주변의 가족이나 친구, 타인들이 창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의 사회적 규범이 창업의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2.1 부모의 창업유무

창업과정에 있어 부모의 창업경험과 인식이 잠재적 창업가에게 중요한 역할모델이다. 부모의 창업과정을 가까이에서 보고 배운 것이 청년창업가의 창업역량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7]. 창업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창업가 부모의 창업경험이 50%이상이라는 결과를 보면 부모 또는 가족이 기업가적 활동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가 창업선택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8]. 김성훈과 남정민(2016)의 연구에서는 창업에 대한 부모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할 때 창업가의 창업의도가 긍정적으로 변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9].

그러나 부모의 창업경험이 청소년의 창업의도를 오히려 약화시킬 수도 있다는 연구도 있다. 이계은 외(2017)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사회적 영향인 부모의 창업경험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10]. 청소년들은 부모님이 창업을 한 이후 겪게 되는 어려움을 지켜보면서 창업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고 창업의도가 낮아진다는 것이다. 부모의 창업이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낸 경우라면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반대로 부모의 창업이 부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낸 경우라면 청소년들에게는 창업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대학생들의 창업의도를 표출함에 있어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는 계층이 부모라고 제시한 연구에서는 부모의 창업유무 및 인

식이 창업에 대한 학생들의 진로선택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11].

2.2 지인의 창업유무

가족이나 지인 등의 창업경험은 학생들에게 좋은 역할 모델이 되며, 이를 통해 창업동기가 고취된다. Francisco 외(2011)는 창업에 대해 친척, 친구, 동료들의 창업활동에 대해 사회, 문화적으로 가치를 부여하는 데에 따라 창업의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제시하였으며[12], Siu & Lo(2013)는 가족, 친구, 타인들이 창업에 대한 생각을 측정하여 이들 요인과 창업의도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3]. 지인의 창업유무와 창업동기에 관한 여러 연구에서는 지인, 동료 등 다양한 사회적 네트워크가 청년창업가의 창업역량과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4, 15]. 창업과 관련된 교수나 교직원, 선배, 동기, 지인들의 창업과정에 관한 이야기, 조언, 코칭 등을 들으면서 창업과정을 이해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창업에 대한 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주변 사람들의 사회적 인식과 지원 정도는 학생들이 창업에 도전하고자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가족, 친지, 지인들로부터 창업활동과 관련하여 긍정적 지지를 받는 대학생들은 그렇지 못한 학생들에 비해 창업의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16, 17]. 정경희·성창수(2017)은 가족의 창업경험보다 지인의 창업경험이 더욱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18], 이재호(2015)는 창업자 주변의 성공과 실패의 모습이 창업의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19].

2.3 개인의 창업 및 취업유무

개인의 창업경험은 시장과 업종을 이해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벤처기업의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20]. Krueger & Brazeal(1994)은 창업경험과 창업성과 간의 긍정적인 효과를 제시하였고[21], 창업가의 관련 경험에 따라 창업성과가 달라진다고 주장하였다. Kolvereid(1996)는 창업경험이 있는 사람이 창업경험이 없는 사람 보다 창업의도가 강하다고 주장하였으며, 대학생의 기업가적 활동 경험이나 스스로의 판단이 창업의도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였다[22]. 사회적 기업가에게도 창업경험은 창업에 대한 두려움과 부담감을 감소시키고 자

신감을 높여줌으로 사회적 가치창출 활동을 강화시킨다[22]. Lafontaine & Shaw(2016)의 연속적 창업이론에 따르면, 여러 번의 창업경험은 새로운 사업을 경영하는데 유의미한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창업의 성공률을 높인다[23]. 이 과정에서 실패를 통한 경험 또한 창업성공률을 높이는데 필요한 과정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창업경험이 있는 대학생들 및 대학원생들은 바로 또는 졸업직후에 창업할 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4]. 또한 창업가의 창업경험은 생산성과 창의성에 대한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25]. 하규수(2015)는 현재 사업을 운영하거나 사업을 한 경험이 있는 경우 대체로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고, 사업실패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26].

반면에 Ali et al.,(2012)의 연구에서는 창업경험이 사업을 하고자하는 의도와 사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중국과 파키스탄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 연구에서는 양국 모두 창업경험과 성과의 관계가 비선형적인 효과를 나타내며, 경험으로 인한 창업의 어려움과 실패, 두려움 등이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27].

개인의 취업경험이나 직장생활 경험은 사업을 시작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창업이벤트 모델을 통하여 취업경험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학생들의 취업경험이 창업의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경험에서 얻은 자기효능감이 창업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의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한 창업의도에 관한 연구에서도 인턴십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창업태도를 키우고 자신의 창업역량을 자극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며,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능력을 개발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28]. 또한 직장이나 사회생활 경험이 부족한 창업동아리 학생들은 창업교육 또는 멘토링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창업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9].

2.4 개인의 창업동아리 활동

대학생 창업활동에 대한 실증적 연구에서 창업동아리 활동을 직·간접적으로 많이 경험할 때 창업의도가 높아진다는 연구가 많다[15]. 창업관련 활동에 참여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창업의도가 높고 향후 창업을 하는 비중이 높다[30]. 이는 학생들이 창업관련 동아리

활동을 통하여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높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영선(2017)의 연구에서는 창업동아리의 기초 과정에서 부터 실제창업을 하는 과정을 통해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프로그램의 활동경험을 조사하였고, 창업동아리 활동에 적극적인 재학생에 대해 심층면접을 실시한 결과 창업활동 과정에서 창업캠프, 경진대회, 멘토링 프로그램에 의해 창업의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창업의 진로결정에 있어서는 자금부족, 자신감 결여, 정보부족, 지적재산권 등록 등의 문제를 먼저 해결한 후에 창업을 한다는 신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31]. 조원길 외(2016)는 전국대학 창업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990명을 대상으로 전화 인터뷰, 방문 및 온라인 설문지를 이용한 연구에서 창업의 특성상 남성이 여성보다 창업의도가 긍정적이며 수도권이 비수도권 보다 창업동아리 학생들의 창업의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9].

3. 연구방법

3.1 질적 연구방법

질적 연구방법이란 현상을 계량화, 범주화하고 이론화하기 이전의 본연의 상태로, 최대한 있는 그대로 또는 그 본래 입장에서 접근하는 연구 방법이다[32]. 주제와 관련된 면접 자료를 정리하고 요인별로 개념과 범주를 축약하는 코딩을 실시하여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유의한 요인을 발견하는 질적 연구방법이 설문에 의한 일반적인 통계분석보다 더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관련 요인을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과대학생이 취업 선호에 대해 보다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진로선택에 있어 취업을 선택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를 실시하여 구체적인 진로선택 이유와 창업과 관련된 사회적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8-12명으로 구성된 그룹과 깊이 있는 인터뷰를 수반하는 평가기법이다.

3.2 연구단계

본 연구를 위해 간단한 질문 목록을 만들고, 사전에 개발한 개방형 질문을 통해 피면담자가 자유롭게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방형 질문은 피면담자는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다. 연구자와 피면담자

가 연구자와 학생 관계이므로, 면담 내용의 객관성을 위하여 서약서를 작성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피면담자의 개인적 의견은 보호된다는 것을 면담 전에 공지하였으며 질문은 첫째, 취업 선택의 원인, 둘째, 부모님의 창업경험에 대해서, 셋째, 지인의 창업경험에 대해서, 넷째, 개인의 창업경험에 대해서, 다섯째, 창업에 대한 의도 여섯째, 창업을 한다면 누구의 관계적 영향을 받을 것인가를 내용으로 작성하였다. 본 연구의 진행과정은 다음과 Table 1과 같다.

Table 1. Research Process

Step	Contents
Questionnaire desig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rafting of questionnaires and interviews (4 times per person) - Pre-interview: 2 researchers
interview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terviewer: Selected as a third party that is not related to the contents of the interview and the subject - Interviewee: engineering college students who chose employment intention - How to conduct interviews · Less than 10 minutes per person · Only once per person · Limit the number of interviewees to 4 persons per day - The interviewer is designed to tell the researcher only the contents of the questionnaire during the interview - Discussion place: Seminar room
data process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cording selection · The contents of the interview are recorded by a third party. · Interviews can be delivered immediately after document type recording · Recording data is processed by faculty and researchers after discussing the correspondence between data and research - Classification work for concept and scope extraction · Classification Participants: Facilitators and researchers who did not participate in the interview · Classifier: Researcher

3.3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하여 서울시 소재 D대학의 공과계열 대학에 재학 중인 3,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창업교육을 받은 학생 중 졸업 후 진로선택으로 '취업'을 선택한 12명의 학생을 랜덤 선별하여 인터뷰를 시행하였으며 남성이 8명 여성이 4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연령층은 20대이다. 본 연구는 심층 인터뷰를 통해 공과대학생들의 창업교육을 통한 진로선택 과정에서 창업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창업의도가 아닌 취업의도를 선택하게 된 원인에 대하여 알아보고 추후 창업에 대한 의도가 있는지 파악하였다. 추후 창업의도가 있는 학생들에게 창업의도에 미치는 사회적 영향과 개인의 창업경험이 창업의도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함이다. Table 2는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에 관한 내용이다.

Table 2. Characteristics of research participants

1	2	3	4	5	6
A	3	Computer Engineering	Yes	Yes	No
B	3	Computer Engineering	Yes	Yes	No
C	3	Computer Engineering	No	Yes	No
D	3	Computer Engineering	Yes	Yes	Yes
E	4	Computer Engineering	No	Yes	Yes
F	4	Computer Engineering	Yes	No	Yes
G	3	Computer Engineering	Yes	No	No
H	4	Computer Engineering	Yes	Yes	No
I	4	Computer Engineering	Yes	Yes	No
J	4	Computer Engineering	Yes	Yes	No
K	4	Mechanical Engineering	No	No	No
L	4	Industrial Systems Engineering	Yes	Yes	Yes

1. Participants
2. grade
3. Department
4. Parents are entrepreneurs
5. Acquaintance are entrepreneurs
6. Experience in personal entrepreneurship

4. 연구결과

4.1 취업의도 및 창업의도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의미 구조

먼저 참여자의 취업의도는 Table 3과 같이 1개의 주제 묶음과 5개의 하위 범주로 도출하였으며 질문의 유사성을 분석한 후, 구조화 하였다.

Table 3. Meaning structure of engineering students' choice of employment intention

Subject	Subcategory
Employment Intention	1. Stable income
	2. Organizational system and culture experience
	3. Parents employment preference
	4. Lack of funds
	5. Lack of knowledge about start-up

또한 Table 4와 같이 참여자의 창업의도는 2개의 주제 묶음과 3개의 하위 범주로 도출하였으며 질문의 유사성을 분석한 후, 구조화 하였다.

Table 4. Meaning structure of the influence of engineering students on the intention of entrepreneurship

Career Choice	Subject	Subcategory
Entrepreneurship Intention	Parents are entrepreneurs	Influence of parents
	Acquaintance are entrepreneurs	Influence of acquaintances
	Experience in personal entrepreneurship	Influence of Personal Entrepreneurial Experience
	Personal employment experience	Influence of personal employment experience
	Experience in entrepreneurship activities in school	Influence of entrepreneurship activities in school

4.2 취업의도의 의미구조 분석

(1) 안정적인 수입

참여자 A : “저는 안정적으로 수입을 위해서 결정했습니다. 창업은 너무 위험요소가 많기 때문에 제가 시도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참여자 E : “저는 안정적으로 빨리 돈을 벌고 싶어서 취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기업에 들어가서 그 구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경험을 해보고 나서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2) 기업 시스템 및 문화 경험

참여자 B : “창업으로는 경험할 수 없는 기업만의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 안에 속하고 싶습니다. 창업을 한다면 부수적으로 기업에 다니면서 하고 싶습니다.”

(3) 부모님의 취업을 선호

참여자 D : “창업을 하면서 같이 겪었던 어려움들을 해결하기가 어려웠을 때 느꼈던 힘든 점이 있었고 부모님들도 취업을 원하셔서 취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참여자 J : “일단 부모님이 창업을 하는 과정을 보면서 회사에서 기술과 아이디어를 열심히 구상하고 그걸 바탕으로 저도 비슷한 방식으로 그걸 따라가려고 취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창업 쪽으로 생각이 있는데 좀 더 기만이 쌓이고 경력이 생기면 시도해 볼 생각입니다.”

(4) 자금 부족

참여자 K : “자본금이 없기 때문에 취업을 원합니다.”

참여자 L : “지금 현재는 취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자본이 필요하고 나중에 꿈이 창업이라 거기에 대해 발판을 삼고자 취업을 하려고 합니다.”

(5) 창업에 대한 지식 부족

참여자 C : “아무런 지식 없이 창업을 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 일단 취업을 통해서 그 시스템을 경험하고 나중에 창업을 하고 싶은 마음은 조금 있어요. 근데 일단 취업으로 뭔가 알고 경험을 쌓고 하다가 나중에 그것을 살려서 창업을 하고 싶습니다.”

참여자 G : 창업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많은 배경지식이 필요한데 아직 그런 것을 못 배우다 보니 취업하는 생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4.3 창업의도에 대한 영향력 의미구조 분석

1) 부모님의 영향

참여자 J : “부모님이 창업을 통해서 자유로운 삶과 그리고 뭔가 사회에 공헌하는 모습을 제가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저도 뭔가 자유롭게 삶을 제가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저도 자유롭게 사회 공헌하는 것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2) 지인의 영향

참여자 A : “지인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업이란 것은 사회의 흐름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지인의 창업은 스타트업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사회의 흐름과 가장 밀접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자 B : “지인이 영향을 더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창업을 한다면 전공을 살리고 하고 싶은데 부모님

이 하는 창업은 전공과 관계가 없고 지인들은 어플리케이션이나 개발 같은 걸로 하는 경험이 있어서 좀 더 많은 영향을 끼치는 거 같습니다.”

참여자 C : “지인이 영향을 끼칩니다. 일단 부모님이 나 저는 창업 경험이 없기도 하고 창업동아리 같은 것이 있는데 그 곳에서 들었던 지식들도 많고, 굉장히 지인에게 창업스토리를 흥미롭게 들어서 저에 창업을 하고 싶다는 마음은 일깨워 준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인이 가장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참여자 D : “지인의 영향이 클 거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 수업을 통해 친구들과 이야기하다가 나온 거기 때문에 지인이 영향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자 E : “지인이 영향이 클 거 같습니다. 아무래도 부모님의 영향은 생각보다 좀 작다고 생각하고 지인들의 얘기들은 좀 다양한 필드에서 경험해 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더 영향이 클 거라 생각합니다.”

참여자 F : “지인의 영향이 클 것 같습니다. 지인은 같은 분야에 있다 보니깐 관련된 창업들을 들으면 이런 아이디어로도 창업을 할 수 있겠구나, 들을 수 있어서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참여자 K : “창업을 한다는 것은 제가 일한 뭇을 회사에 나누어 주지 않고 본인 온전히 챙기겠다는 동기부여를 통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즉, 돈을 좀 더 가지고 싶은 마음 또한 지인들의 창업 주로 생계형 창업이었습니다. 돈의 목적이기라기 보다는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서입니다.”

Table 5와 같이 인터뷰 결과를 살펴보면, 창업 보다 취업을 선호하게 된 이유는 불확실한 미래보다는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위하여 취업을 선호하게 된 것이 큰 이유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 고유의 시스템을 경험하고 조직 생활을 통해 여러 가지 기업 경험을 체험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영향관계에서는 부모님의 취업 선호도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부모가 현재 사업을 하는 경우 창업과정의 고통과 어려움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하게 되면서 창업보다는 취업을 선호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초기 창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창업을 시작하기 전에 취업을 선택하기도 하고, 창업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부족하여 창업보다는 일반적인 진로인 취업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영향관계와 창업의도를 살펴보면 지인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학교생활을 하면서 다

양한 프로젝트와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하여 자신들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성취감과 서로가 부족한 부분을 충족시켜주어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창업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용기가 높아져 창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Interview Result

1	2	3	4
A	F	Stable income	Acquaintance
B	F	Organizational system and culture experience	Acquaintance
C	F	Lack of founding knowledge	Entrepreneurship activities in school
D	F	Parent employment preference	Acquaintance
E	M	Stable income	Acquaintance
F	M	Lack of ideas	Acquaintance
G	M	Lack of knowledge about startup	No influence
H	M	Lack of knowledge about startup	No influence
I	M	Hardship in startup	No influence
J	M	Parent employment preference	Parents
K	M	Lack of funds	Acquaintance
L	M	Lack of funds	Parents

1. Participants
2. grade
3. Reason for employment preference
4. Social factors influence on the Entrepreneurship Intention

4.4 사후분석

인터뷰를 통한 질적 연구결과를 객관적인 통계자료로 확인하기 위해 기업가정신 교육 및 창업교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공과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는 질적 연구결과를 통해 유추된 창업의도의 영향요인을 통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함이다. 먼저 설문대상의 인구 통계적 분석을 통해 인터뷰에서 유추한 창업의도의 영향요인(부모의 창업 유무, 지인창업 유무, 개인 창업 경험, 개인취업 유무, 창업 동아리 활동경험)의 유무를 통계적으로 확인하였고, 차이검증을 통해 각 영향요인 간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설문문항은 학생들의 성별 및, 학년, 부모, 지인, 개인의 창업유무, 취업 및 동아리 활동 경험의 유무를 묻는 인구통계학적 질문이다. 창업의도는 Linan & Chen(2009)이 개발한 창업의도 항목을 사용하였다[33]. 창업의도 항목에 대한 크론바흐 알파값은 0.921로 문항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고 있다. 진로선택에 있어 취업을 선택한 공과대학생 149명은 남자 99명(66.4%),

여자 50명(33.6%)이며, 학년별로는 1학년 6명(4.0%), 2학년 57명(38.3%), 3학년 51명(34.2%), 4학년 35명(23.5%)로 3학년 학생이 많았다.

취업을 선택한 공과대학생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본 연구의 이용된 149명의 응답자 중 부모님의 창업경험이 없는 학생이 112명(75.2%)이며, 부모의 창업경험이 있는 학생은 37명(24.8%)으로 적었다. 지인 창업유무는 각각 66명(44.3%), 83명(55.7%)으로, 지인 중 창업경험이 없는 학생들이 많았고, 창업경험이 있는 학생은 4명(2.7%)으로 창업경험이 없는 학생(145명, 97.3%)에 비해 현저하게 적었다. 또한, 개인 취업 경험 유무는 각각 11명(7.4%), 138(92.6%)이며 창업동아리 활동경험 유무는 각각 11명(7.4%), 138명(92.6%)을 나타내고 있다 (Fig. 1, Table 6 참조). 전체적으로 취업을 선택하는 학생들의 특징과 사회적 관계를 살펴보면 개인의 창업 또는 취업경험이 전무하거나, 창업동아리 활동 경험이 없는 학생들이 대부분이고, 가까운 지인 및 부모의 창업경험도 대부분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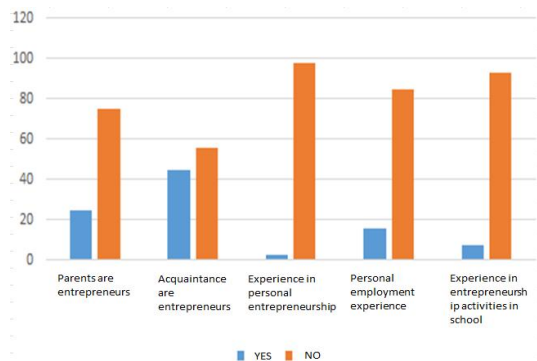


Fig. 1. Social Influence

Table 6. Social Influence

Social Factors	Persons (%)
Parents are entrepreneurs	Yes: 37 (24.8%)
	No: 112 (75.2 %)
Acquaintance are entrepreneurs	Yes: 66 (44.3 %)
	No: 83 (55.7 %)
Experience in personal entrepreneurship	Yes: 4 (2.7 %)
	No: 145 (97.3 %)
Personal employment experience	Yes: 23 (15.4 %)
	No: 126 (84.6 %)
Experience in entrepreneurship activities in school	Yes: 11 (7.4%)
	No: 138 (92.6 %)
Total	149 (100 %)

창업의도에 대한 사회적 영향요인 (부모의 창업 유무, 지인창업 유무, 개인 창업경험, 개인취업 유무, 창업 동아리 활동경험)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지인의 창업경험 유무가 창업의도에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2, Table 7 참조). 지인이 창업을 하고 있는 경우 또는 지인들과 기술 개발을 함께 하면서 창업에 대한 장, 단점과 경험을 공유하며 창업과 관련된 지식과 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수업을 통해 친구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하는 과정에서 창업에 관심을 갖고 창업의도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차이검증을 통한 사후 분석을 통해 앞서 실시한 질적 연구결과에서 도출된 창업의도의 영향요인 간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설문에 의한 통계적 분석에서도 취업을 진로선택으로 결정한 학생들의 사회적 영향요인, 즉 부모, 지인, 개인의 창업활동 경험이 거의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질적 인터뷰의 결과와 같이 지인의 창업경험이 추후 창업을 진로로 선택하는데 있어 중요한 영향요인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질적인 연구결과를 뒷받침하기 위해 단순한 통계적 차이를 살펴보았다. 추후 연구에서는 각 요인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실증적으로 검토하고, 연구가설과 모형을 기반으로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로분석 및 상관관계분석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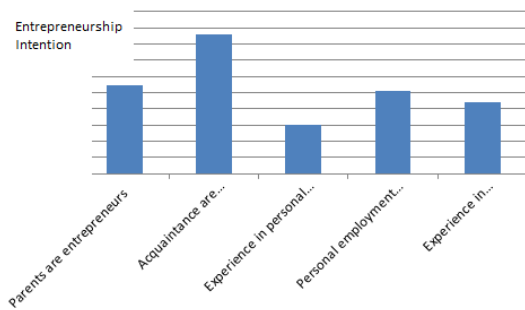


Fig. 2. Relationship between social influence factors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s

Table 7. Relationship between social influence factors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s

Social Factors	Entrepreneurship Intention
Parents are entrepreneurs	1.34
Acquaintance are entrepreneurs	1.41
Experience in personal entrepreneurship	1.29
Personal employment experience	1.34
Experience in entrepreneurship activities in school	1.32

5. 결론

본 연구는 공과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선택에 있어 취업을 선호하는 원인과 추후 창업의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적 영향요인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 창업교육을 이수한 공과대학생 중 향후 진로선택으로 취업을 선호하는 12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방법인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를 실시하였으며, 창업회피와 의도 등 주제와 관련된 심도 깊은 인터뷰를 통해 현상에 대한 요인을 구조화 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을 선호하게 된 이유로는 안정적인 수입, 기업만의 시스템 경험, 부모님의 취업선호, 자금부족, 창업에 대한 지식부족 등 다양한 원인으로 나타났다. 공과대학생들은 현재 사회경제적 상황에서 불확실한 심리적 갈등으로 인해 창업보다 취업을 선호하는 의도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뷰 내용 중 다양한 매체에서 실제 청년 창업의 성공 사례보다 실패사례의 위험 등이 빈번하게 보이고 있고, 창업을 하면 실패하고 또다시 회복하기 어렵다는 심리적인 불안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창업의도에 미치는 사회적 영향관계에서 가장 큰 영향에 미치는 요인은 지인의 창업 유무로 나타났다. 평소 가까운 지인들의 창업과정 스토리를 자주 접하고 성공과 실패경험 등 창업과정의 지켜보면서 창업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창업의도가 고취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창업한 부모, 가족이나 창업을 하는 친구 및 이웃의 존재와 같은 개인의 사회적 자본이 예비창업자의 초기 창업 활동 가능성을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창업자 주변의 친구나 가족, 타인들이 창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규범이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13, 34].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학생들은 사회 경험에 대한 두려움과 자금 부족 등 충분한 창업 준비역량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창업교육 과정과 활동 등을 통해 이러한 두려움과 자신감 부족 등으로 창업을 회피하는 현상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창업교육의 주요 교수법인 팀 학습을 통해 사회적 유대관계를 높이고, 서로 다른 생각과 전공분야를 융합하여 다양한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지

원하는 것이 창업에 대한 두려움과 인식을 고취하는데 중요하다. 특히 공과대학생들에게 공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사업화로 연계되는 아이디어 개발 및 검증할 수 있는 교육 및 초기 창업자금에 대한 정보제공과 관련한 전문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실패를 용인하고 극복할 수 있는 자신감과 위험감수성에 대한 용기를 키울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대학 학부과정의 창업교육은 반드시 청년스타트업을 목표로 한 창업실무교육 보다는 학생들에게 창업에 대한 이해와 기업가적 인식을 고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대학에서 기업가정신 교육과 창업교육을 통해 대학생들에게 창의적이고 다양한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장에 적용할 수 있는 현장교육 등을 통해 창업만이 아닌 진로선택 및 개인의 삶의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창업교육을 통해 사회현상을 시뮬레이션을 함으로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자신만의 뚜렷한 목표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사회적 영향관계에 있어 지인의 창업경험 및 이해가 창업의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는 주변 동료 및 지인과의 협업 및 의사소통, 이해공유 등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창업교육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기업가들의 특강 및 멘토링을 통하여 지인 및 선배의 창업과정 및 경험을 공유하고, 창업에 대한 이해와 자신감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35]. 따라서 사회적 영향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인 지인, 선배들의 긍정적인 사회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창업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을 일깨워 주고 다양한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특히, 재학 중 전공지식을 토대로 성공한 선배창업가 등의 실제 경험과 관련역량을 체득하는 공학기반의 전문 창업교육과정을 개발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된 멘토링, 커뮤니티, 현장 실습, 시뮬레이션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현장 경험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 사회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와 의지를 향상시켜 줄 수 있도록 정부지원 및 학교 기관의 노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수그룹을 대상으로 심도 깊은 인터뷰를 통해 창업을 회피하고 취업을 선호하는 학생들의 특징과 사회적 영향관계의 요인을 확인하고, 학생들의 창업회피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 연구 결과는 창업교육의 중요함을 인식하고, 대학생

들의 기업가정신 고취 및 창업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즉 창업교육이 궁극적으로 취업 및 고용관련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서울에 있는 D대학 공과대학생을 대상으로 취업의도가 높은 소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통한 정성적 연구의 한계를 가진다. 향후 연구에서는 진로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검증하는 실증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질적 연구에서 도출된 사회적 영향요인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실증적으로 검토하고, 창업교육의 효과성 또는 창업의도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 및 경로분석을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계하여 통계적으로 검증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REFERENCES

- [1] H. J. Yoo, E. S. Park, L. T. Oh & W. H. Kim. (2016). The Determinants of Youth Job Preference Change.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35(1), 1-19.
- [2] O. J. Lim. (2012). Analysis of Factors Affects Vocational Decision of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Education Research*, 33(2), 19-49.
- [3] H. S. Park. (2013). *The effect of parental socio-economic status on career choice and job preference of adolescents*. A master's thesis at Hanyang University.
- [4] School to Work Transition Information Survey System. (2016), *KOREA EDUCATION DEVELOPMENT INSTITUTE*, <http://swiss.chedi.re.kr/>
- [5] S. G. Walter, K. P. Parboteeah & A. Walter. (2013). University departments and self-employment intentions of business students: a cross-level analysi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37(2), 175-200.
- [6] H. J. Jeon & J. W. Park. (2014). A Study on Changes of Entrepreneurial Ecosystem on Women Entrepreneurial Intention.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0(2), 85-96.
- [7] I. S. Lee, O. S. Kim & Y. A. Rha. (2013). A Study on the Effect of Young Entrepreneurs' Growth Factors on Entrepreneurial Capability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s : Focused on the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Culinary and Food service. *The Korean Journal of Culinary Research*, 19(4), 25-39.
- [8] A. Shapero & L. Sokol. (1982), Social Dimensions of Entrepreneurship, *The Encyclopedia of Entrepreneurship*,

-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72-90.
- [9] S. H. Lim & J. M. Nam. (2016). Republic of Korea Entrepreneurship Ecosystem Status and Recognition Research: Focusing on Entrepreneurs, Entrepreneurs Preliminary, Student Centered Comparative Analysis on the Status and Recognition.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1(6), 175-183.
- [10] J. E. Lee, J. W. Kang & C. K. Kim. (2017). Do Personal and Relational Characteristics of Korean High School Students Affect Their Entrepreneurial Intention?. *KOREA ASSOCIATION OF BUSINESS EDUCATION*, 32(3), 193-214.
- [11] T. U. Ahn, J. H. Park & I. H. Lee. (2017). The Influence of University Entrepreneurship Education's Creativity Capacity to Entrepreneurship Willingness: The Moderating Role of Social Support. *The Conference on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Summer, No.1-13*, 8, 490-502.
- [12] L. Francisco, D. Urbanob & M. Guerrerobm. (2011). Regional Variations in Entrepreneurial Cognitions: Start-up Intentions of University Students in Spain. *Entrepreneurship & Regional Development*, 23(3-4), 187-215.
- [13] W. S. Siu & E. S. C. Lo. (2013). Cultural contingency in the cognitive model of entrepreneurial intention.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37(2), 147-173.
- [14] N. Bosma, J. Hessels, V. Schutjens & M. V. Prag. (2011). Entrepreneurship and role models.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33(2), 410-424.
- [15] S. D. Chang & Z. H. Lee. (2013). A Study on the Influencing Effects of University Students' E-Business Start-up Intention. *The e-Business Studies*, 14(3), 37-53.
- [16] J. H. Yang. (2015). A Study on the Effect of Contextual Factors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Korean University Students. *KOREA ASSOCIATION OF BUSINESS EDUCATION*, 30(1), 25-45.
- [17] C. H. Yook & I. O. Jeon. (2014). Effect of Entrepreneur's Characteristics on the Intention of Entrepreneurship -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Entrepreneurship Mentoring in Korean.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4(10), 661-676 .
- [18] K. H. Jung & C. S. Sung. (2017). The Effects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dividual Environmental Factor and Individual Trait on University Student's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6), 179-187.
- [19] J. H. Lee. (2015). Establishment of social safety net and promotion of business start-up through international comparison of entrepreneurial ecosystem. *Korean Academy of International Business Management*, 2015.11, (pp. 57-89).
- [20] B. J. Bird. (1993). *Demographic Approaches to Entrepreneurship : The Role of Experience and background*, In Katz. J. A. and Brockhaus(Eds.). R. H. Advances in Entrepreneurship, Firm Emergence and Growth, Greenwich, CT : JAI Press.
- [21] N. F. .Krueger & D. V. Brazeal. (1994). Entrepreneurial potential and potential entrepreneur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8(3), 91-104.
- [22] L. Kolvereid. (1996) Prediction of employment status choice intention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21, 47-57.
- [23] F. Lafontaine & K. Shaw. (2016). Serial Entrepreneurship: Learning by Doing? *Journal of Labor Economics*, 34(S2), 217-254.
- [24] Y. J. Lee & G. C. Jeong. (2015). Determinants of Entrepreneurial Intention and Startup Time - Who and When will Start up? *Korean Academic Society Of Business Administration*, 2357-2377.
- [25] J. Y. Park & C. S. Sung. (2016). The Effect of Entrepreneurs' Social Network on Entrepreneurial Performance : Focusing on Moderating effect of Entrepreneurial Experience.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1(3), 87-96.
- [26] K. S. Ha. (2012). Factors Affecting Entrepreneurial Intention form Business Attitude And Fear on Business Failure. *Korea Corporation Management Association*, 45, 59-74.
- [27] S. Ali, L. Wei & W. Wenjun. (2012). Determinants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among the College Students in: China and Pakistan. *Journal of Education and Practice*, 3(11), 13-23.
- [28] S. C. Chen, H. C. Hsiao, J. C. Chang & C. M. Chou. (2017). The Affect of off-Campus Internships Program on Universities Student's Entrepreneurial Attitude and Capacity. *International Journal of Information and Education Technology*, 7(6), 449-455.
- [29] W. G. Cho, H. M. Jung & C. Y. Park. (2016). A Study on Influential Factors on the Foundation Intention of Start-up Student Groups. *Korea Regional Economic Research institute*, 33, 69-89.
- [30] J. H. Cho & C. J. Kim. (2015). The Effects of University Students' Entrepreneurship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 Moderating Effects of Entrepreneurial Education and Entrepreneurial Participation, *Korean Journal of Resources Development*, 18(4), 53-75.
- [31] Y. S. Lee. (2017). A Study on Startup Education

Programs in Design Junior Colleges Centering around Startup Associations. *Journal of the Korean Entrepreneurship Society*, 12(2).

- [32] Y. H. Jo. (2004). Educational anthropology and qualitative research. *Anthropology of education*, 1-21.
- [33] R. Linán & Y. W. Chen. (2009). Development and Cross-Cultural Application of a Specific Instrument to Measure Entrepreneurial Intention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33(3), 593-617.
- [34] Y. G. Ku, M.S. Suk & O. S. Cho. (2018). Converged Influence of Individual, Parental and Social Support Factors to the Life Satisfaction of Adolescents. *Journal of the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8(2), 183-192.
- [35] I. C. Yoon. (2017). Effect on startup mentoring, education satisfaction, and startup intention according to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 of university student.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8(6), 265-273.

김 유 신(Kim, Yu Shin)

[정회원]



- 2014년 3월 ~ 현재 : 동국대학교
기술창업학과 석박사 통합과정
- 관심분야 : 기업가정신, 기술창업,
창업교육 등
- E-Mail : sinyangel@dongguk.edu

성 창 수(Sung, Chang-Soo)

[정회원]



- 2013년 3월 ~ 2015년 2월 : 선문대
학교 조교수
- 2015년 3월 ~ 현재 : 동국대학교
기술창업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기술창업, 기업가정신,
혁신, 창업교육 등

· E-Mail : redsun44@dongguk.edu

박 주 연(Park, Joo Y.)

[정회원]



- 2014년 9월 ~ 현재 : 동국대학교
기술창업학과 자문위원
- 관심분야 : 기술창업, 창업교육, 기
업가정신 등
- E-Mail : park3500@naver.com